

## 생활양식변화에 따른 여가관련소비의 계량적경제분석

최 현 숙\*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겸임교수)

안 옥 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양 선 아 (영남대학교 약품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고도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고령화, 핵가족화, 여가 관련 소비의 증가 등 생활양식 또한 두드러지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 중 특히 주목만할 것은 1980년 후반부터 대도시가계의 여가관련소비항목의 현저한 증가비율이다. 2000년 현재 여가관련소비는 21.8%를 차지해 식료품비(25.2%)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양식변화에 따른 여가관련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분석 및 변화요인을 계량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파악 하고자한다. 본연구의 자료 분석은 가계관련통계자료 및 Raw data 를 이용하여 SPSS WIN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소비 관련재의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량이 증가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기의 소비습관효과는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서비스, 외식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가시간의 증가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외식 항목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화효과는 외식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나, 종래의 고령자 이미지를 벗어나, 적극적인 고령자 이미지로 보다 활동적인 삶을 보내고자 하는 계층이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트렌드는 외식과, 교양오락용품기구에서 플러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외식의 경우는 식생활의 외부화를 반영한 결과로 추측된다.